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토틸** 난 **구구**

2021 04

2021 **안산** **방문의 해**

안산톡톡 Vol. 488

발행일 2021년 3월 25일

발행인 안산시장 윤화섭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 대변인

e-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Fax 031.481.3224

E-mail ansannews@korea.kr



@ansancity3 안산시청

@ansancity cityansan ansancity

YouTube 안산시유튜브 ansancity

표지 이야기(일동성호공원 벚꽃)



4월은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다. 벚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자생했으며, 특히 왕벚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다. 안산에는 왕벚나무를 비롯 다양한 벚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안산의 벚꽃명소로는 화정천, 해안로 등이 있다.

목차

- 04 **특집 ①**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 06 **특집 ②**
4·16 가족 이야기
- 08 **기획①_안산9경**
노적봉공원, 풍도
- 10 **기획②_천년도시**
천년을 지켜온 이름, 안산(安山)
- 12 **기획③_청년큐브**
청년 창업의 꿈을 응원하는 안산
제이앤케이 글로벌 / ㈜정식
- 14 **생생도시 안산**
안산시민이 알아야 할 안산시 소식
- 16 **인터뷰**
KBS ‘노래가 좋아’ 우승자, 안산 청년 광영광
- 18 **살맛나는 안산**
명예시민기자가 전하는 안산 이야기
- 22 **의회소식**
- 24 **우리동네**
- 26 **시민기자가 간다**
생생 마을기자단, 학생기자단, SNS시민기자단
- 28 **참여마당**
건강칼럼, 독자투고, 나비잠
- 32 **알림마당**
이달의 책, 4월 독자 퀴즈, 일자리 정보

안산톡톡을 매월 모바일로 받아보는 방법

① 카카오톡 친구 ‘안산시청’ 검색 ② 카카오톡 채널 추가버튼 클릭 ③ 완료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곳 '안산시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구경하세요!

수확부터 판매까지 한번에!

로컬 푸드(local food)란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이 로컬 푸드를 중간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곳이 바로 로컬 푸드 직매장이다. 직매장에서 이뤄지는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단원구 와~스타디움 내 1,168㎡ 규모로 들어서서는 안산시 로컬 푸드 직매장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로컬 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업인 생산자가 직접 운송부터 포장, 진열, 가격 결정, 수거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생산자 주도형'으로 운영한다. 농산물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앤 새로운 유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는다.

지역 농산물부터 중소기업 제품까지 다양하게!

안산시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는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작 중인 농업인,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등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은 물론 관내 기업체가 내놓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다.

현재 안산시 로컬 푸드 직매장에는 지역 농업인 200명이 참여해 441품목(채소류 172개 · 과일류 63개 · 특용작물 56개 · 식량작물 45개 · 화훼류 40개 등)이 등록된 상태다. 중소기업의 경우 10개 업체(판매 7 · 전시 3)에서 화장품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25개 품목 이상이 등록됐다. 또 사회적 기업 10곳에서 목공예품과 맘 블럭, 가방 등 20여 개 품목을 판매한다.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 체계를 마련한 것에 이어 우수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생산품 등을 대상으로 기업체에 판로를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안산시 자매결연도시 지역특산품을 연계해 판

매할 계획이다. 안산시 로컬 푸드 직매장은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농산물에 판로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369-1504)

안산에서 난 신선한 특산물로 맛있게 요리하세요!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안산 대표 특산물을 소개합니다.



동주염전 천일염

화학 장판지가 아닌 옹기 조각을 깔아 만든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으로, 옹기 타일 틈으로 다양한 유기물질이 소금에 스며들어 풍미가 아주 좋다. 갯벌을 통해 유해성분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간수가 빠져 쓴맛이 적은 고품질 소금이다. '깡파리 소금'은 대부도 옹기토판염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다.



그랑꼬또 와인

그랑꼬또는 '큰 언덕'을 뜻하는 프랑스 말로 그랑꼬또 와인은 대부도에서 생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다. 대부 포도 명성처럼 원재료인 포도의 맛이 뛰어나 와인 역시 품질이 좋다. 상큼한 향과 산뜻한 신맛 그리고 부드러운 단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대부 포도

대부도는 바닷바람, 습도, 일교차 등 여러 환경적 요인에서 포도 재배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 대부 포도는 육지에서 재배한 포도보다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상록수 된장

100%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 콩과 태양초 고추를 사용해 만든 된장이다. 시골 전통방식을 그대로 이어온 노력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다. 대부도 포도를 이용해 만든 '대부도 포도 고추장'은 특허까지 받았다.



분오 으뜸쌀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하고 경기 으뜸미로 공동브랜드 마크를 받은 우수한 쌀이다. 밥맛이 뛰어나고 까끄라기가 없는 청결미로 주목받는다.





4·16 7주년, 별이 된 아이들이 남겨준 의미를 찾아서 목공소, 공방,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이야기

“솔직히 아이를 위해 살았던 저희에게 ‘희망’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하늘에서 아이들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은 후에 남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를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시작한 활동이 어느새 목공소가 되고 공방이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4.16희망목공소와 4.16공방, 4.16가족나눔봉사단에서 활동 중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4.16희망목공소



4·16희망목공소는 2015년 4월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과정이 길어지면서 분향소에 머물던 유가족들에게 삶을 붙잡을 수 있는 소일거리와 동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



작하게 됐다. 목사님 두 분의 도움으로 목공을 처음 배웠던 부모님들은 이제 고급 가구도 똑딱 만들 수 있는 목공 기술자가 됐고, 취미 공간이던 목공소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으로 틀을 갖췄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수연아빠 이재복 씨는 따뜻한 성질의 나무를 다루며 잡념 없이 몰입할 수 있었던 시간 덕분에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그에게 희망목공소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곳이다.

이재복 씨에게 별이 된 아이가 가장 떠오르는 순간은 언제일까?

이재복 씨는 “아이가 팽목항에서 처음 올라오자마자 잠수사들이 찍어 놓은 사진을 봤어요. 그 모습이 일본 일초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나중에 아이를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성역 없이 제대로 조사해서 어떻게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4.16공방

4.16공방은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에게 피난처 같은 곳이었다. 무너지는 마음을 버틸 힘이 없을 때 엄마들은 이곳에 모여 바느질을 하며 잠시라도 편하게 아이 이야기를 하고 실컷 울기도 했다. 서로 의지하며 아픔을 나누면서도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엄마들이 만든 공예품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소통하는 공간이 됐다.



김순길 4.16공방장은 “우리 아이들처럼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길 바라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된 나라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아이가 가장 떠오르는 순간이 언제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갈계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김 씨는 “윤희는 항상 거실에 나와서 자곤 했는데 아침에 깨울 때면 항상 윤희의 이불 속에 꼭 들어가



서 안아주며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떠올라요”라고 말했다.



4.16가족 나눔봉사단

4.16가족 나눔봉사단은 그동안 유가족들 곁에서 힘이 돼 주었던 이웃들의 사랑을 다시 지역에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4.16가족협의회 추모부서에서 3년 전 발족하게 됐다. 봉사단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꽃편지 배달부 캠페인과 사랑의 산타 활동, 연탄 나눔 활동 등을 펼치며 지역에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박정화 4.16가족 나눔봉사단장은

“정말 힘들었을 때 저희 곁에서 밥까지 떠먹여 주시던 이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가 받기만 했더라고요. 고마운 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봉사로 나누어 드리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가족 생일이 돌아올 때면 아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면서 “우리 딸은 이벤트를 참 잘해줬어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되면 딸이 다 챙겨줬죠. 제 생일날에도 밤에 일을 다녀오면 불을 다 꺼놓고 깜짝 이벤트를 해줬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고 덧붙였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daum.net

진달래가 벌써 피었습니다.

어느새 일곱 번째 4·16입니다. 삼가 머리 숙여, 세월호 참사로 떠나간 이들을 가슴에 담습니다.

국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참담함,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별이 되지 않았다면,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그림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기억하고 꼭 지키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416합창단의 첫 창작곡 '너'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산’ 매력에 빠지다

안산시는 올해 ‘2021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해 심과 여유를 주는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부터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갈대습지공원, 다문화거리, 노적봉공원은 안산9경으로 지정된 안산만의 볼거리가 가득한 곳들이다.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맞춘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노적봉공원

4월의 푸르른 하늘을 만날 수 있는 노적봉공원은 안산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다. 노적봉의 유래는 산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형상과 같다고 해 붙여졌다. 2004년 조성된 인공폭포는 인조암으로 만들어졌다가 2016년 1천900개의 자연석으로 재공사하면서 자연석 폭포로 재탄생했다. 노적봉 정상에 오르면 안산시 전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보는 서해 낙조를 절경 중 하나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산39-1





노루귀



핑의 바람꽃



풍도대극



복수초



풍도바람꽃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

안산 풍도

‘야생화 천국’ 안산 풍도(楓島)에서 봄기운을 만끽하자. 복수초와 풍도바람꽃, 핑의 바람꽃, 노루귀 등 쉽게 볼 수 없는 야생화 자생지로 알려진 풍도는 3월이면 숲 곳곳에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낸다.

풍도는 서해의 다른 섬들과 달리 수심이 깊어 갯벌과 해수욕장과 같은 체험장은 없지만 풍부한 어장과 함께 각종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와 다양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특히 3월이면 야생화를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수령이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와 청일전쟁 때 발생한 풍도해전 당시 청나라 군사들의 시신이 밀려온 청요골 해변이 대표적 볼거리다.

천년을 넘어 지켜온 이름 ‘안산(安山)’

고려 초기부터 조선왕조를 거쳐 지금까지 지켜온 이름

경기도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1천여 년 간 고을 이름을 유지해온 곳은 안산(安山), 광주(廣州), 안성(安城), 양주(楊州), 평택(平澤) 등 다섯 곳이다.

안산이라는 지명이 처음 문헌에 나온 것은 고구려 때로 ‘장항구현(獐項口縣 / 노루목곶)’이라고 하였으며, 일명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 / 곧은곶)’라고도 했다. 통일신라시대인 757년(경덕왕 16)에 ‘장구군(獐口郡)’으로 고쳤다.

940년(고려 태조 23) 그동안 한자 음(音)을 빌려 쓰던 고을 이름을 ‘안산군’이라고 고쳐 한자화했는데, 1018년(현종 9)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안산현’이라 하여 수주(水州; 수원)의 속현(屬縣)으로 삼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문종(고려 제11대 왕)이 탄생한 고을이라 하여 다시 안산군(安山郡)으로 승격됐고, 이후 지사(知事)의 다스림을 받았다.

〔원〕 安山縣本高勾麗獐項口縣新羅景德王改爲獐口郡。高麗初改爲安山郡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忠烈王三十四年以文宗誕生之地陞知郡事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고려 제8대 임금 현종이 거란족의 침입을 피해 나주로 피난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공주절도사가 안산김씨의 시조인 ‘김공필’의 아들 ‘김은부’였는데 김은부의 둘째 딸이 제11대 임금 문종을 낳은 ‘원혜왕후’이다. 문종은 태조 ‘왕건’과 제4대 임금 ‘광종’과 함께 고려의 3대 명군으로 꼽힌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각종 법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고 불교 중흥을 위해 넷째 아들을 출가시켜 승려가 되게 하니 그가 바로 천태종을 창시한 대각국사 ‘의천’이다. 유학을 장려했고 국방과 외교에도 힘써 동여진이 북변을 침략하자 이를 토벌하기도 했다. 송나라, 이슬람과 친선을 도모해 교역이 융성했으며 빈민 구휼에서도 치적을 쌓은 명군이다. 때문에 충렬왕 때에 문종이 탄생한 안산을 현에서 군으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1390년(공양왕 2)에 경기(京畿)를 좌·우도(左右道)로 편제할 때 경기좌도에 속했다. 조선이 건국되고 1394년(태조 3) 그대로 안산군으로 경기좌도에 예속됐고 1413년(태종 13) 좌우도의 구분을 없앨 때 경기도에 소속됐다.

조선말 1895년 8도제를 없애고 23부제로 바꿨다가





상록구 수암동에 위치한 안산음성 복원 조감도



경기읍지 규장각소장본(1871)

이듬해 다시 13도 체제로 개편할 때도 ‘안산’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 강점 후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 ‘면의 명칭 및 경계 획정’으로 안산군의 근내·인화·초산면이 시흥군 수암면으로, 와리·대월·마유면이 시흥군 군자면으로, 월곡·북방·성곶면이 수원군 반월면으로 각각 통합·편입됨으로써 고려 초기인 940년부터 1914년까지 975년간 계속 유지되었던 ‘안산’이란 고을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통탄할 일이다.

1914년 3월 1일은 일제에 의해 안산군, 과천군을 강제로 통합하여 거대한 시흥군이 탄생된 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산군이 일제에 의해 시흥군에 강제 합병되고 고을 이름 안산이 멸실된 날이기도 하다. 1977년 12월 시흥군 군자·수암면, 화성군 반월면

일대를 반월신공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반월도시 개발 지원사업소 경기도 조례가 공포됐고, 1977년부터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본격적인 개발과 성장을 계속하면서 1978년 2만 명이던 인구가 1985년 말 13만 명에 이르러 시로 승격할 요건을 갖추게 됐다.

시의 명칭은 경기도반월지구출장소의 이름을 따서 ‘반월시’로 명명될 예정이었으나, 유해엽 초대 안산문화원장 등 뜻있는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70여 년간 사용하지 못했던 ‘안산’이란 이름을 되찾아 1986년 1월 1일 ‘안산시’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2021년은 안산이란 지명이 생긴 지 1천81년, 고려 초기부터 조선왕조를 거쳐 975년간 지켜왔던 이름을 안산시 승격(1986)과 함께 되찾은 지 35년째가 된다.

이현우(안산문화원 향토사 전문위원)

◀ 사진 설명

- ① 안산음성 목빙고(상록구 수암동)=조선시대 얼음을 보관하던 냉장시설로 전국적으로 발견된 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
- ② 안산향교지(상록구 수암동)=안산향교 터. 향교는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이며 안산향교의 건립 시기는 고려 충렬왕 시기로 추정된다.
- ③ 문종 태함(상록구 사동)=고려 제11대 왕 문종(1046~1083)의 태(胎)를 묻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단원구 고잔동에서 출토됐으나 현재는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안산문화원 야외 전시장에 위치해있다.



청년큐브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의 도전을 엿볼 수 있다.

‘화장품에서 건강식품까지’ 해외시장 트렌드를 한 눈에...제이앤케이 글로벌

화장품을 수출하는 제이앤케이 글로벌은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의 국내 로드숍 제품을 해외시장에 내놓으며 큰 관심을 받은 청년 기업이다.

해외 판매를 시작하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동대문부터 화곡동까지 밤낮으로 발품을 팔았다. 꾸준한 노력으로 기업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로 4년차인 제이앤케이 글로벌은 2019년 청년큐브에 입주했다.

입주 후 본격적으로 K-뷰티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 주변국 트렌드를 분석하고 마케팅 방법을 연구하며 수출 방향성을 잡아 나가고 있다.

품질이 뛰어난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 중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건강식품 관련 시제품 개발도 이뤄졌다. 2019년 내놓은 ‘선비 약초’라는 이름의 양배추 환과 산수유 가루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식품 패키징 개발과 건강 제품 브랜드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권현진 제이앤케이 글로벌대표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청년 사업가들의 경우 최대 3년인 청년큐브의 입주 기간은 아쉬움이 남지만, 청년큐브에 입주한 후 공간과 편의 시설을 지원받으면서 시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신명트윈타워 A동 5층 4호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위해 함께 하는 청년큐브

규모 : 한양캠프, 예대캠프, 초지캠프 등 3개소 50개실

구성 : 창업실, 디지털제조스튜디오, 회의실, 세미나실 등

**연
락
처**

- 초지캠프(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신명트윈타워 A동 5층/031-487-9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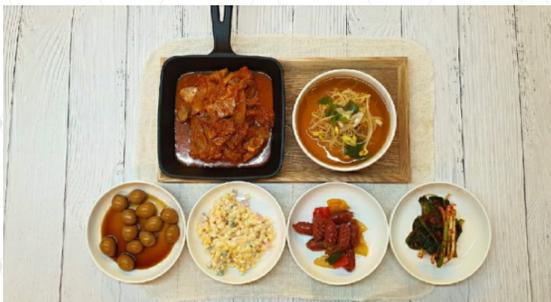
- 한양캠프(상록구 한양대학교로 60, 4층/031-415-5600)

- 예대캠프(상록구 광덕산안길 20, 광덕종합시장 303호/031-475-8200)



4차 산업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는 청년큐브 입주 기업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정직한 식사’ 플랫폼 (주)정식에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정직하게 식사하세요”



현대인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쉽게 섭취하고 있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를 섭취하기는 어렵다.

‘(주)정식’은 이러한 불균형한 영양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과 1인 가구 등을 위한 건강하고 정직한 식사를 대접한다. 20년 경력의 셰프가 직접 만들고 전문 영양사가 설계하는 수제 반찬들이다.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상태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내 몸에 꼭 필요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제공한다.

올해로 3년째 ‘식단제 반찬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정식은 올해 1월 청년큐브에 처음 입주했다. 이곳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홍보가 어려워 개발한 앱의 활용도가 낮았지만 지금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직한 식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균형 잡힌 식단을 메뉴 고민 없이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식단을 선택하면 새벽에 바로 받을 수 있다. 식단은 2~3인분에 해당하는 1세트가 국과 메인요리, 4가지 반찬으로 구성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부부의 경우 새벽에 받으면 아침 식사도 할 수 있다. 1개만 구매해도 배송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건강한 식단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주)정식만의 장점이다.

유진혁 (주)정식 대표이사는 “앞으로 청년큐브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맞춤형 식단 반찬 배달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누적데이터로 분석하고 고객별로 맞춤 건강 정보와 선호 식단을 추천하는 주문 방식의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과의 약속’...힐링 공간으로 거듭난 안산시 1호 복합청년몰 개소

신안코아 지하 1층에 자리한 복합청년몰이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다. 10여 년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던 신안코아 지하공간이 청년창업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신안코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신안코아 지하층을 리모델링한 복합청년몰은 청년창업공간 20개(음식업 13문 화예술 7) 점포가 입점하면서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새로 입점한 청년상인 18개 점포는 4.6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이번 복합청년몰 개소로 노후화 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복합청년몰 이후에도 청년을 비롯한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청년맘 등 다양한 계층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인큐베이션 역할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684)

코로나 우울 극복하는 ‘찾아가는 마음쏙카’

안산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울감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마음쏙카’를 운영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쏙카는 코로나19로 우울감과 스트레스, 감정 조절 어려움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시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쏙카 이용을 원할 경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031-411-7573~4)

임산부 정신건강을 위한 ‘맘이음’ 운영

안산시는 산전·산후 여성의 우울, 스트레스, 불안 해소와 코로나19 사태로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맘이음(Mom-eum)’을 운영한다. 맘이음은 산전·산후 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추진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상담, 치료비 지원, 교육 등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박진건 연세서울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4~5시까지 상담하는 ‘맘클리닉’도 함께 운영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031-481-6951)



안산 탄도항 해변에서 1억2천만 년 전 공룡화석 발견

안산 대부도 탄도항 인근 해변에서 1억2천만 년 전 존재한 코리아케라톱스 발가락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됐다. 지난 2월 탄도항을 찾은 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화석은 조사 당시 지골 뒷부분에서 앞부분까지 거의 완전하게 보존돼 있었다. 시는 향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연구 자료를 받아 활용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00년 대부광산 채석장에서는 1억 년 전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 5개가 발견된 바 있다.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6)

안산시 방범CCTV 을 연말까지 2배로 증설



안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방범CCTV를 기존 3천900대에서 2배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3천900대인 시내 방범CCTV는 7천318대로 증설된다. 기존에 설치된 방범CCTV 3천523대는 신형으로 교체되고 3천795대가 새로 설치된다.

시는 아울러 방범CCTV 시스템 통합 관리 운영과 유지 보수 업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 안산시 신성장전략과(031-481-3435)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안산시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한다. 개설된 공익제보 핫라인은 안산시 시민안전과에서 전수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물론, 장상·신길2지구 농지법 위반사항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하는 이른바 '가짜농부'와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문의 : 안산시 시민안전과(031-481-3482)



안산청년 광영광! 행복을 주는 트로트 가수로 인사드립니다!!

안산에서 태어나고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한 곽영광(23) 씨가 지난 달 KBS2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서 4연승을 달성하며 트로트 가수로 우뚝섰다.

곽영광 씨는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년 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면서 본격적으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트로트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안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곽영광 씨를 만났다.

Q KBS2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서 4연승을 달성하면서 명예 졸업을 했는데 우승소감 부탁드립니다.

A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에 좋은 결과를 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Q ‘노력하는 청년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산시민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99년 1월에 태어나 쪽 안산에서 자라온 ‘곽영광’입니다. 노래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2018년 ‘상록수 가구거리 축제’에 참가해 대상을 받게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24시 내고향’이라는 앨범을 발매했고, 올해는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에 아버지가 사연을 보내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Q 트로트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부모님이 트로트를 워낙 좋아하시다보니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익숙했어요. 어머니가 뱃속에 저를 품고 계실 때부터 트로트를 많이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동요보다 트로트를 더 많이 듣고 부른 것 같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제가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하다보니 다 같이 모였을 때 자주 나서서 트로트를 불렀어요. 그러다보니 ‘트로트’라는 장르가 자연스레 익숙해져서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Q 트로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A 동생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모님이 부담이 많으세요. 제가 성공해서 아픈 동생 병원비로 부담이 없도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제가 아직 정식으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고 실력도 많이 부족해요. 우선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새로운 앨범을 내기 위한 준비도 같이 해나가려고 해요.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안산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이 듣고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기운 낼 수 있는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더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께
행복을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눈과 따뜻한 가슴으로 만드는 공간 안산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



봄이 오면 좀 나아지려나, 지난 달 원곡동 한 상가건물 2층에 자리한 지구인의 정류장에 들어서자 실내인데도 입김이 다 보일 정도로 외부의 한기가 그대로 전달됐다. 지구인의 정류장이 이곳에 자리 잡을 당시에도 난방 시설이 잘 갖춰진 건 아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공사를 할 형편도 전기료를 감당하며 난방을 틀어 댈 수도 없는 형편이라 말 그대로 겨울 추위를 버텨내고 있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 상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쉼터 운영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뜨거운 도마 위에 오르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낯선 땅,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곁에서 사건들을 이슈화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활동의 최전선에 ‘지구인의 정류장’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사회



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의 열악함 또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쉼터는 지구인의 정류장 사무실 한쪽에 위치해 있다. 직장을 잃거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남성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사무실 내 임시로 쉼터를 마련해 운영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교육장으로 쓰던 공간을 쉼터로 활용하다보니 난방이 되지 않았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은 이불로 막아뒀지만 바닥과 벽 사이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기에 부족했다. 화장실, 싱크대 등 부대시설도 오래 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함께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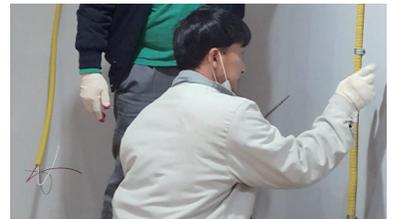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안산시고용안정대책위(고용안정대책위) 주관으로 지구인의 정류장과 그 안에 있는 이주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지난 2월 20일부터 8일 동안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고용안정대책위 소속 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은 후원금 그리고 단체 소속 회원들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또 자원봉사단체 ‘안산시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안사모)’ 소속 설비배관업체와 가람설비 인테리어 김환을 대표, 전기시공업체 장기 대표, 도배시공업체 소경호 대표가 참여해 따뜻하고 안전한 쉼터로 개선하는데 함께 했다. 이들은 쉼터에 마루 바닥과 전기 판넬 설치, 단열을 위한 새시 교체, 단열재 시공 등을 벌였고, 싱크대 교체와 전기 점검, 전기공사, 화장실 공사 등을 진행했다.

양성습 고용안정대책위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소외받고 있다. 이번에 쉼터 개선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을 열고 쉽게 문 두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 우리가 ‘나’보다 주위를 둘러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과 따뜻한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주 지구인의 정류장 사무국장은 “일 자리를 잃고 안산에 온 이주노동자를 위해 안산의 이웃들이 함께 힘을 써준 덕분에 따뜻하고 깨끗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구인의 쉼터를 통해 각자의 고향을 떠난 지구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부터 업사이클링까지... 일상에서 지구를 지켜요



매년 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이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속에서 병들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일상 속에서 지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바로 분리수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재활용품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하는 등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기업에서도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소비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활동이나 제품도 주목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종이

신문지는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배출한다. 골판지 상자 등도 비닐 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한 후 펴서 차곡차곡 모은 다음 배출해야 한다. 우유팩과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봉투에 넣거나 함께 묶어 배출한다. 영수증이나 벽지, 부직포나 코팅된 광고지,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송장 스티커, 포장테이프는 제거하기



신문지나 박스 등은 찢지 않게 묶어서 배출



코팅지, 영수증,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불가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제품마다 HDPE, PP, OTHER 등 재질이 적혀있는데, OTHER이 표기된 제품은 플라스틱이지만 재활용이 안 되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이외에 플라스틱 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를 떼 후 배출하면 된다. 특히 ‘비닐 및 투명 페트(PET) 분리 배출제’ 시행에 따라 무색,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상표를 떼고 압착하여 뚜껑을 닫고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내놓아야 한다. 유색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다른 재질의 뚜껑과 라벨 제거하기



피그러뜨려서 부피 줄이기



내용물 비우고 깨끗이 헹구기



유색,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기’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을 모두 제거한 후에 플라스틱과 별도로 배출한다. 코팅되어 있는 유색 스티로폼

과 과일 포장재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비닐

택배상자에 들어있는 에어 캡은 구멍을 내어 바람을 뺀 뒤 버린다. 아이스 팩 내용물의 경우 생태계를 파괴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이



뤄져 있기 때문에 뜯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비닐과 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친환경 아이스 팩은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포장재는 비닐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식품 포장지 등 각종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 뒤에 분리 배출한다.

금속 고철류



철 캔과 알루미늄 캔 등 금속 캔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다음 배출한다. 특히 부탄가스통이나 살충제통은 구멍을 뚫어 가스

를 배출시키고 버려야 한다. 못이나 철사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스테인리스 냄비와 프라이팬 같은 비철금속도 고철류로 배출하면 된다.

유리



보증금 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해 환급 받고 음료수 병이나 기타 병류는 상표를 제거해 색깔별로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크리스털 유리제품, 유리뚜껑, 거울, 깨진 유리 등은 신문지로 잘 싸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양이 많은 유리 쓰레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납과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이 들어 있어 무분별하게 버리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별도 배출한다. 백열전구, LED 전구, 깨진 형광등은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양이 적을 경우, 신문지로 잘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단, 양이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과정을 거쳐 퇴비나 가축 사료로 재활용된다. 된장, 찜장, 고추장 등 장류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단, 김치나 젓갈류는 물로 씻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하다. 소, 돼지, 닭 등을 비롯한 동물의 뼈, 조개, 소라, 굴, 전복 등 딱딱한 껍데기와 생선뼈, 달걀껍질, 파, 마늘대 등 채소 뿌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3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작으로 4월 2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1회 추경안 포함 총 38건 심의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4월 2일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 세 차례, 상임위원회 다섯 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섯 차례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7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집행부 제출 안건 중에는 기정예산 대비 3.6%(694억8645만여원) 증액된 1조9773억9819만여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포함됐다.

첫 의사일정으로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의결됐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의결에 앞서 김태희, 김진숙, 현옥순 의원은 각각 ▲시 집행부가 마련한 ‘의회업무처리 매뉴얼’ 개선 필요성 ▲GTX-C 노선 안산 유치 관련 시 역할 확대 ▲고잔동 내 특정건물을 시 업무시설로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은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여러 안건이 논의된다”면서 “동료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Green & Clean 21’, 2차 간담회 개최 그린뉴딜 정책 인식조사 등 포함 4월 중 착수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Green & Clean 21’이 지난 3월 1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열어 연구 과제와 관련한 용역 내용 등을 검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강광주, 윤석진, 이진분, 김정택, 윤태전, 현옥순 의원과 연구단체 자문을 맡은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

정책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안산형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연구 목표로 삼고 있는 Green & Clean 21은 2차 간담회에서 연구과제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연구용역 실시 시기와 용역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연구용역 시기의 경우 내달 착수 보고회를 실시한 뒤 8월 말까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 수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광주 대표 의원은 “전통 제조업 기반의 안산스마트허브를 그린 산단으로 변모시키는 첩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앞으로의 연구과정에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추진,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부방 관리 강화 방안 논의 구마교회 사건 재발 방지 차원 공부방 관리 관련 대안 제시 및 입장 청취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개인과외 교습자(공부방)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기환 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 윤석진, 김동규, 나정숙 의원 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박은경 의장이 함께 했으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흥정표 안산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공부방을 중심으로 구마교회 사건 피해자들이 교회로 유입됐음에도 공부방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교육지원청이 시가 꾸린 구마교회



사건 대책 TF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한 안내 창구를 만들어 공부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장기적으로 공부방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시와 공유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설 '상록수' 무대 '상록구'



“꿈을 향한 첫걸음!”

사동주민협의회, 마을 아이들의 첫 입학 축하 선물 전달

상록구 사동주민협의회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마을 어린이들에게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세대 공감·공존을 꿈꾸는 사동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축하 선물 250여 개는 각각 가족으로 만든 카드지갑과 캘리그래피 축하카드로 구성됐다. 사동주민협의회는 지난해에도 봉사자들과 함께 카드지갑 250여 개를 만들어 석호초와 성안초에 각각 전달했다. 사동주민협의회는 세대를 넘나들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을 목표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원목 퍼즐인형을 제작해 선물하는 ‘출산 축하’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유순, 이영임 사동주민협의회 공동대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숙담처럼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포동에서 봄꽃 향기 맘껏 즐겨요”

성포동 직능단체, 코로나19로 지친 마을주민 위해 봄꽃 선물

상록구 성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성포동 도로변 일대 화단에 팬지와 비올라, 데이지 등 봄꽃 1천여 본을 심었다. 통장협의회와 동 직원들이 함께 한 이번 식재 작업으로 성포동에 봄꽃 향기가 가득해졌다.



이번 식재 작업은 ‘꽃내음 가득한 상록 도시 숲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봄꽃은 성포동 곳곳에 심어졌다. 평소 통행량이 많은 스타프라자와 버스터미널 일대 가로화분을 중심으로 봄꽃을 식재했다. 김정실 성포동통장협의회장은 “성포동을 찾는 시민에게 꽃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 다가오는 따스한 새봄을 맞아 거리에 가득한 봄 향기를 만끽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규 성포동장은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마을주민 모두가 화사한 팬지꽃을 바라보며 움츠린 마음을 활짝 펴고 봄의 활기를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

증양동

“방역 서포터즈 활동으로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해요” 증양동통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 서포터즈 역할 토크



단원구 증양동 통장협의회가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방역 서포터즈 활동은 자칫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예방 역할을 토크히 하고 있다.

방역 활동 대상은 증양동 서울예대 앞 다세대·다가구 등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이다. 주요 서포터즈 활동은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 대한 소독과 환기, 항균필름 부착, 방역수칙 홍보 등이다. 증양동통장협의회 소속 회원 48명이 주 2회씩 꾸준하게 방역 서포터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숙희 증양동통장협의회장은 “최근 같은 건물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안해할 주민들을 위해 방역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 꾸준한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숙 증양동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에 나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운동

“반찬 나눔으로 따뜻한 행복을 전해요” 백운동 새마을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진행

단원구 백운동새마을회는 지난 3월 5일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설맞이 떡국떡 판매 수익금으로 반찬 재료를 구매해 곁절이, 동치미, 식혜 등 맛갈스러운 반찬을 만들어 관내 40명의 대상자에게 전달했다.

반찬을 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외출조차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다양한 반찬을 전달해주고 말벗이 되어주어 정말 고맙고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현석 백운동장은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새마을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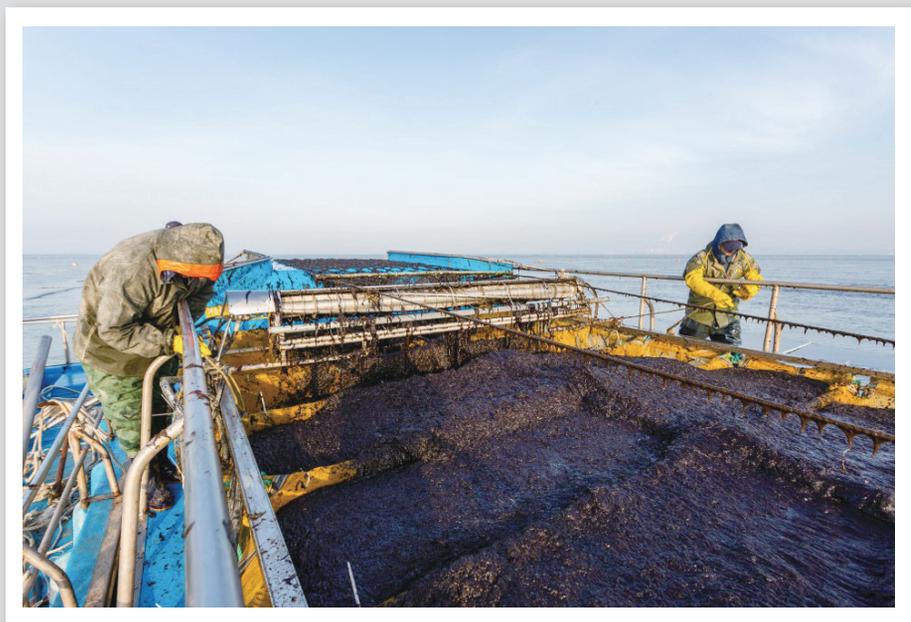
시민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안산소식!



안산의 자랑
그리너스 FC 개막전
다녀왔어요!



대부도에 엄청난
김 부자가 있다던데?!
'행낭곡 어촌계'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지식 칼럼

100세 시대 치아관리 요령 자연치아 오래 보존, 관리하기



신경 치료된 자연 치아는
정상 치아보다 훨씬 약해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피해야
오래 쓸 수 있다.
자연 치아의 최대 적은 딱딱하고
질기고 끈끈한 음식이다



주동현열린치과의원 원장
주동현 치의학 박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100세 인생을 꿈 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화 반응은 제일 먼저 눈에 시력이 떨어지고 치아의 상실이 시작되면서 흔들리게 된다. 옛날 어르신들이 치아가 오복 중 하나라고 하시던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게 확실하다.

치아는 유전적인 영향이 강해서 치주 병의 경우는 급격히 치조골이 상실되면서 옥수수 알 빠지듯이 쉽게 치아가 흔들리면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21세기 치의학의 발달로 임플란트 시대가 열리면서 상실된 치아가 몇 개든, 어떤 위치에서의 치아 상실이든지 임플란트를 통해 완전히 회복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임플란트 2개를 본인 부담금 30%로 할 수 있도록 해 비보험 일반 수가여서 비용 부담이 됐던 부분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스케일링과 정기검진을 하고, 필요하면 치주 치료와 신경 치료를 통해 발치를 피하고 미룰 수 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경 치료를 받은 치아를 꼭 보철 크라운을 씌우고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경 치료된 자연 치아는 정상 치아보다 훨씬 약해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피해야 오래 쓸 수 있다. 자연 치아의 최대 적은 딱딱하고 질기고 끈끈한 음식이다. 예를 들어, 마른 오징어, 끈끈한 엿, 삼겹살 오도독뼈, 어패류의 작은 껍데기 등은 음식물을 씹을 때 치아를 파절 시키고 크라운 부위가 떨어져 나오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치과의사는 양치질이다. 식후 꼭 양치질을 하는 습관과 음식물을 섭취할 때 주의하여 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하려는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임플란트란? 인체에 무해한 인공치아 재료가 사람의 턱 뼈와 잘 붙는 현상을 이용해 충치나 잇몸병으로 없어진 치아나 사고 또는 종양 등으로 뼈와 잇몸이 없는 부분에 대해 미용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회복시키는 치료를 말한다.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눈

올해 시청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다. 성인 발달 장애인이 자립 활동을 하는 주간활동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이곳에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꿈인 친구도 있고 제과 제빵을 배우며 제빵사를 꿈꾸는 친구도 있다. 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화가가 꿈인 친구도 있고, 천연비누를 만들며 꿈을 키우는 친구도 있다. 이 친구들은 영화관 이용 방법도, 마트 장보기도, 대중교통 이용 방법도 모두 반복적인 연습을 거쳐야만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겨우내 얼었던 날씨가 풀리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지만 코로나19로 여전히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밥 한 끼를 먹으러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움을 주는 선생님들 모두 두 배로 힘든 상황이다.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을 이용할 때면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라 행동이 거칠고 음식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표현 방법이 서툴 뿐 밥을 먹을 때마다 쳐다보는 부담스러운 시선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 혹여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본래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니 예쁘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막상 나도 이곳에서 일을 해보니 우리 친구들은 참 열심히 살아간다. 아침마다 밝은 미소로 “선생님, 참 예쁘다”라고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다소 길고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며 멋지게 인사를 하는 친구도 있다. 또 자신이 어렵게 만든 작품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는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우리 친구들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장애를 지녔지만 소중한 존재다.

이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응원해주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홀로서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눈을 지니게 됐다. 장애인을 보는 시선도 우리 친구들을 토닥이며 격려해주는 마음도 생겼다.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삶의 의지도 배워본다. ‘오늘 하루도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나는 행복하다’를 외치며 오늘 하루를 우리 친구들과 시작해본다.



박속현(단원구 신길동)

오늘부터 나도 초등학생!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엄마인 나도 덩달아 1학년이 된 느낌이다.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은 한 달이다. 초등학교 입학은 첫 학교생활의 시작이기에 학교란 ' 즐겁고 신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아이와 설레는 '처음'을 함께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

선일국민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나의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요즘은 학습 준비물도 대부분 학교에서 준비해 주고, 아이들이 돈 걸을 일이 없도록 스쿨뱅킹이라는 것도 생겼다.

특히 아이 인생의 첫 통과 의례인 입학식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운동장이 아닌 각 학급에서 학생들이만 참석해 진행되었다.

나는 자녀가 하나뿐인데 특별한 아이의 입학식을 교문 밖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자니 이 시국이 참으로 아깝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없던 준비물도 추가됐다. 바로 여분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마스크 스트랩이다.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부모로서 개인위생도 특히 신경이 쓰인다. 입학식 날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얼굴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가 일상을 넘어 의무처럼 되어버린 모습이 왠지 씁쓸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지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백신 접종'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기원하며 아이가 마스크를 벗고 등교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서로를 응원해본다.

"나의 사랑스런 딸 혜윤아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부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너도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

강민정(단원구 선부동)



안산톡톡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락처, 주소, 글과 관련된 사진을 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면 5만원 이상의 소정의 원고료를 다운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분량 A4용지 1/2, 관련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 36개월 이내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100자 내외, 아기사진



아기 이름 : 김예온(여)



출생년월 : 2021년 1월



첫째를 낳고 키우면서 둘째는 첫째보다 더 능숙하고 노련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둘째를 낳고 나니 첫째랑 성별도 다르고 성격, 행동 모든 게 다 달라서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둘째를 낳고 정말 많이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동생이 울면 모빌을 끌고 와서 켜주고 공갈 젓꼭지도 물려줍니다. 때리는 건지 재우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토닥토닥 잠도 재워 주지요.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태어나, 예온아 엄마 아빠가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김다슬(상록구 이동)



아기 이름 : 최서호(남)



출생년월 : 2020년 8월

우리 서호가 태어난 지 200일이 되었어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툰 엄마 아빠인데 여태껏 미열 한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준 아기에게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 서호는 의자에 앉아서 TV도 보고 고기를 넣은 이유식도 맛있게 먹고, 빨대 컵으로 물도 마실 줄 알고, 사운드 북을 읽어주면 '까르르' 웃기도 한답니다. 소중한 우리아기 콩콩아~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늘 고마워.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응원하고 함께 할게♡ 내 보물 우리 서호! 엄마가 너 무너무 사랑해♡



전주희(단원구 선부동)



아기 이름 : 김유하(여)



출생년월 : 2019년 7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었던 7년의 시간을 보내고, 믿기지 않게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왔어요. 힘들게 찾아온 아이여서 산전검사를 할 때마다 걱정이 되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개월이 되었네요.

둘이 지나서도 걸음이 늦어 마음을 졸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신발장에서 자기 신발을 찾아와 나가자고 조르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유하야 모든 게 부족한 엄마지만 사랑을 주는 마음 만큼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우리 예쁜 공주 김유하 너무 사랑해♡

최나단(상록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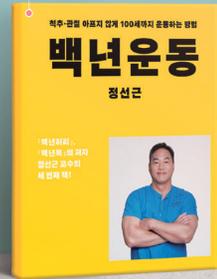
아동



청소년



성인



이달의 주제 : 집콕 취미생활

아동

**창의력 뽐뽐!
어린이 셰프 요리책**

저자 디에나 F.쿡 출판사 바이킹

아이는 다양한 재료로 여러 모양을 만들며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창의력을 키운다. 요리를 완성한 후에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이 요리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가 가득하다. 아동요리 지도자인 저자가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구성하고 레시피를 적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는 기쁨도 배운다.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사진 공부**

저자 홍상표 출판사 지노

멋지고 좋은 사진은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사진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자는 사진을 잘 찍는 단편적인 기술보다 사진을 사랑하고 잘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사진의 의미와 역사부터 촬영과 감상하는 방법까지 사진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에게 안성맞춤이다.

성인

백년운동

저자 정선근
출판사 언택글링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는 그의 새로운 책, '백년운동'을 통해서 100세 인생을 건강하고 멋지게 살고 싶은 이들에게 그 방법을 의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 교수가 몇 년 전에 출간한 '백년 허리', '백년 목'에 이어 이번 신간 '백년운동'은 관절과 척추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방법을 제시한다.



감골도서관 하루10분 독서운동

신청기간 : 2021. 3. ~ 12.

대 상 : 안산시민(3인 이상 모임 및 단체)

신청방법 : 감골도서관 홈페이지>안산의 책>하루10분독서

활동내용 : 개인 독서와 온·오프라인 독서모임 운영

참여혜택 : 우수참여단체 5권 선정 및 시상 / 독서모임 활동 위한 희망도서 5권 제공 / 독서모임 장소 제공



홍작가와 미러리스 뿌시기 A to Z

운영기간 : 2021. 4. 7. ~ 4. 28. (매주 수요일, 총 4차시)

참여대상 : 카메라 촬영 및 편집에 관심 있는 안산시민 누구나

내 용 : 전문적인 미러리스 카메라 촬영편집 배우기

참여방법 : 유튜브 '안산시 도서관' 채널 내 영상시청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영상 업로드 예정)

문의전화 :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 031-481-3890



4월 도서관 일정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중앙	시민서평단 4기 기초반	4/8,15,22,29	안산시민 20명
	시민서평단 4기 심화반	4/7,14,21,28	안산시민 20명
	경기도 문화의 날 공연 '맛있는 마술쇼'	4/3	안산시민 누구나
미디어	도서관주간기념 외국어동자료 전시회	4/12~23	안산시민 누구나
감골	신박한 인생정리	4/14	안산시민 100명
	당신이 있는 곳이 도서관 PICNIC in GAMGOL	4/12~18	안산시민 누구나
	세렌디피티 북	4/12~18	도서관 이용자
성포	랜선아트 플러스펜 수채화	4/15~5/6	안산시민 10명
	모래에 담긴 스토리텔링 [샌드아트 동화공연]	4/18	유아 및 어린이 가족 100팀
상록	부모특강 '우리 아이 성교육 준비하기'	4/8~10	학부모 60명
	랜선으로 체스 클래스	4/17~24	초등 2~3학년 12명 초등 4~5학년 12명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문어목욕탕에 어서 오세요'	4/8	유아7세~초등 3학년 20명
	꼭꼭 씹어 먹는 독서	4/17~5/8	초등 3~5학년 15명
	랜선으로 친구랑 보드랑	4/12~5/3	초등 3~4학년 12명
	[북스타트 언택트 책놀이] 그림책 놀이터	4/13~5/4	유아 6~7세와 양육자 8팀
	4월 그림책 원화전시 '계란말이버스'	4/1~30	도서관 이용자
	4월 온라인 그림책 원화전시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4/1~30	도서관 이용자
일동	힐링 캘리그래피	4/9~5/7	성인 15명
부곡	이 안에 어떤 책이 있을까?[블라인드 도서 대출]	4/13~25	안산시민 50명
본오	초등 저학년 [온택트 '인성놀이터']	4/16~5/7	초등1-2학년 15명
	초등 고학년 [랜선여행 '우리고장 안산']	4/16~5/7	초등3-5학년 15명
관산	사이다 작가와의 만남 '심장도둑/사이다'	4/15	초등1-3학년 25명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햇별 토스트/이해진'	4/17	유아 및 학부모 15팀
	세상을 바꾸는 도서관 '코로나의 시대, 명화로 읽는 전염병의 세계사'	4/15~5/6	안산시민 50명
	문화의 날 '오선지 위의 인문학'	4/27~28	안산시민 50명
	원화전시 '도토리 모자'	4/5~30	도서관 이용자
단원 어린이	원화전시 '멸치 챔피언'	4/6~30	도서관 이용자
	독서육아특강 '미라클 베드타임'	4/13	안산시민 50명
원고잔	미술심리치료 '힐링 아트 스튜디오'	4/16	성인 10명
	키즈 쿠킹 클래스 '팡팡 초코볼 만들기'	4/9~10	어린이 및 학부모 20팀
	키즈 쿠킹 클래스 '상큼 레몬청 만들기'	4/23~24	어린이 및 학부모 20팀

※ 안산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ansang.go.kr/>) >에서 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안산시청 카카오톡채널 할인가맹점 모집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안산시 관내 사업자
- 신청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 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hsh212@korea.kr)
- 참여혜택
 - 안산시청 카카오톡채널 친구에게 할인가맹점 할인쿠폰 발송
 - 홍보물 제작 및 시 공식 SNS채널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문의전화 : 안산시청 대변인(☎ 031-481-2039)

2021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개별주택) 2021. 3. 19. ~ 4. 7.
(공동주택) 2021. 3. 16. ~ 4. 5.
- 열람내용 :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청 공정조세과,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의견제출방법 : 열람장소 등 방문 및 팩스 제출
- 문의전화 : 안산시청 공정조세과
(☎ 031-481-2182, 2193~4)

4.17 부터 시행합니다!

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로는 30km/h)로 조정하는 교통정책입니다.

도심부 제한속도 60km를 50km로 내리면?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분!
교통사고 사망자 최대 24% 감소!

안산상록·단원 경찰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한시적 시행

- 기 간 : 2020. 8. 5. ~ 2022. 8. 4.
- 대 상 : 1988년 1월 1일 이후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농지 및 임야
(상록구 :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건건동, 팔곡일동, 사사동
단원구 : 화정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
- 주요내용 : 미등기 토지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
- 신청방법 :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받아 관할구청에 신청
- 문의전화 : 상록구 민원봉사과(☎ 031-481-5373)
단원구 민원봉사과(☎ 031-481-6788)



4월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특>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하나

4월 호에 나온 00000은 안산9경 중 1곳으로, 특히 이곳에 조성된 인공폭포는 2016년 1천900개 자연석으로 재공사하여 자연석 폭포로 재탄생되었다. 00000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노적봉공원 ② 보라매공원 ③ 서울대공원

두줄

최근 KBS2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서 4연승을 달성, 명예 졸업을 한 트로트 가수 000은 안산에서 타고 자란 안산 토박이로 알려져 있다. 000은 누구일까요?

- ① 임영웅 ② 광영광 ③ 이찬원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업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능)

응모기간 : 4월 28일까지 3월 호 정답 : ①, ②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소개합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안내

- ◇ 장 소 : 안산시청 민원동 2층
-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업무내용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 ◇ 이용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문의전화 : 031-481-2919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사업(청년 취업 홀런 옷장)

- ◇ 운영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18~39세 청년
- ◇ 지원내용 : 취업 면접용 정장 대여 (1인당 연 5회까지 무료 이용 가능)
- ◇ 이용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청년취업홀런옷장] 접속
- ◇ 문의전화 : 031-481-2923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내 일(JOB)'을 찾아드립니다.

4월 목요일에 희망잡(Job)고(Go) (소규모 맞춤형)

- ◇ 일 시 : 2021. 4. 1.(목) 오후 2~4시
- ◇ 개최장소 : 안산시청 제2별관동 1층 화상면접장
- ◇ 운영방식 : 온라인 비대면 화상면접
- ◇ 행사규모 : 기업체 3개 ◇ 문의전화 : 031-481-2931

4월 안산 919취업광장 (온라인)

- ◇ 일 시 : 2021. 4. 19.(월) ~ 23.(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 운영방식 : 온라인 비대면·비대면 화상면접
- ◇ 행사규모 : 구인업체 20여 개 ◇ 문의전화 : 031-481-2919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안산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건설 반대"

KBS&OBS (3월 5일)

안산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건설 반대



도권 서해에서도 김 양식... "맛도 좋고 향도 좋아"

YTN&연합뉴스TV (3월 7일)

수도권 서해에서도 김 양식 맛도
좋고 향도 좋은 대부김 인기



안산시, 외국인 고용... '코로나 검사결과 확인' 행정명령

KBS&OBS&한빛방송 (3월 10일)

안산시 외국인 고용
코로나 검사결과 확인 행정명령



뉴스광장 영상 풍도 야생화

KBS(3월 6일)

뉴스광장 영상
풍도 야생화

일상을 찾는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1분기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구급대 등)
- 정신요양·재활시설등 입소자·종사자

2분기

- 코로나19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등)
- 보건의료인(의료기관, 약국)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64세 이하)
- 사회필수인력 (군인·경찰·소방 등)

3분기

만 18세 ~ 64세

4분기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항체유지기간 고려)